

“성훈이와 함께 뛰고 싶다” 등번호 ‘61번’ 단 박상원



한화 박상원

한화 이글스 투수 박상원(25)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료 투수 김성훈의 등번호를 단다. 58번에서 61번으로 바꾼다.

박상원과 김성훈은 2017년 함께 프로에 데뷔한 '입단동기'다. 대학(연세대)을 거친 박상원이 나이는 내살 더 많다. 김성훈은 지난달 23일 새벽 광주 시내 모 병원 옥상에서 실족해 끝내 운 나사로 눈을 감았다. 사흘 내내 빈소를 지켰던 박상원은 발인을 마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애뜻한 추모의 글로 팬들의 심금까지 울린 바 있다. 고인의 첫 손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 고인이 보여준 따뜻한 동료애에 대한 고마움이 절절히 배어있었다.

불행한 기억이 뇌리에 여전한 가운데 박상원은 최근 구단에 등번호 변경을 요청했다. 당초 구단에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61번을 달고 김성훈과 함께 뛰고 싶다'는 박상원의 간곡한 요청에 구단도 방침을 바꿨다.

박상원은 15일 전화통화로 그 사연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그는 “프로에서 58번을 달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정우람 선배(57번)에게서 야구로든, 인간적으로든 배운 게 많아서 그 두 번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또 58번은 야구선수들이 그다지 좋아하는 번호는 아니어서 내가 끝까지 달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61번이 몇 년간 빈 상태로, 또 그 뒤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며 “스파이크와 글러브에도 (김)성훈이의 이름을 새겨달라고 구단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박종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야구·소프트볼인의 밤’ 감사패 수상



박종범 이사장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박종범 이사장이 최근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한 '야구·소프트볼인의 밤' 시상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종범 이사장은 올해 여름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개최된 2019 12세 이하(U-12)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및 전국여자야구대회를 비롯해 제29회 기장세계청소년야구대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마케팅팀에서 관리하는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장국제야구대축제가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등 국내·외 다양한 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상시 유치하며 전국 최우수 시설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롯데, ML투수 출신 스트레일리 영입...외인 세팅 완료

제구형 투수·수비형 야수 픽...달라진 롯데

스트레일리, ML서 44승 거둔 중형급 외인투수 제구력 좋지만 피홈런 많아 성 단장 “투고타저 KBO 고려해 영입” 내야수 마차도는 넓은 수비범위 자랑



샘슨 스트레일리 마차도

컨셉트는 명확하다. 제구력을 앞세운 투수와 수비로 내야진의 중심을 잡아줄 타자. 롯데 자이언츠의 2020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은 ‘수비 강화’라는 키워드와 맞닿아있다.

롯데는 14일 외국인 투수 맨 스트레일리 영입을 발표했다. 앞서 도장을 찍은 투수 애드리안 샘슨, 내야수 디슨 마차도와 더불어 2020시즌 외인 조각이 끝났다. 당초 롯데는 샘슨, 마차도 듀오에 기존 외국인 투수였던 브룩스 레일리과 재계약을 시도했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았고 즉시 플랜B를 가동해 스트레일리를 데려왔다.

최근 KBO리그 무대를 밟는 외국인 선수들에게 ‘빅 리그 경험’은 필수 옵션이 되고 있다. 스트레일리 역시 메이저 리그(ML) 156경기(140경기 선발)에서 803.1이닝을 소화하며 44승40패, 평균 자책점(ERA) 4.56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3년간 풀타임 선발투수로 활약했지만 2019년 무릎 통증 때문에 14경기 등판에 그쳤다.

샘슨은 41경기(20경기 선발)에서 6승 12패, ERA 5.71을 기록했다. 2019년 빅 리그 풀타임 투수로 뛰었고, 완봉승도 한 차례 달성했다. ERA 등 비율 스렛이 썩 좋진 않지만 텍사스에서 워낙 높은 기대를 갖고 키우던 유망주였기 때문에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기 쉽지 않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성민규 롯데 단장의 네트워킹이 빛을 발했다.

샘슨과 스트레일리의 가장 큰 공통점은 제구와 피홈런이다. 둘 모두 압도적인 파워 피쳐는 아니지만 안정된 제구력을 자랑한다. ML에서 기록한 9이닝당 볼넷 비율을 살펴봐도 스트레일리는 3.5개, 샘슨은 2.4개다. 이른바 ‘볼질’하는 투수와는 거리가 멀다. 그 대신 ML 커리어 내내 피홈런에 발목을 잡혀왔다.

바로 이 지점이 롯데가 샘슨, 스트레일리 듀오를 데려온 이유다. ‘역대급 홈런시대’가 진행 중인 ML과 달리 KBO

리그는 2019시즌을 앞두고 공인구 반발 계수를 조정했다. 전년 대비 순장타율 감소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정타를 맞더라도 홈런은커녕 장타도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샘슨과 스트레일리가 홈런 걱정 없이 자신의 장기인 제구를 뽐내기에 최적의 무대다.

이들의 뒤에는 마차도가 있다. 한 관계자는 “마차도는 수비 범위가 넓은 김재호(두산 베어스)라고 보면 된다. 범위가 넓은데도 안정감이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성민규 단장은 “마차도는 타율 0.260~0.270에 8~9홈런만 기록해도 성공이다. 수비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롯데가 최하위로 떨어진 건 투수진의 볼넷과 야수진의 실책 때문이었다. 약점을 메우는 데는 성공했다. 이제 이 프로세스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차례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양준혁 자선대회’ 빛낸 박진우-한선태 홈런레이스

2차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 박진우 우승 유희관 올라프·김용의 엘사 변신 웃음



NC 박진우 LG 한선태

이날만큼은 포지션 파괴는 물론 야구의 기본 룰을 깨트린 플레이까지도 허용됐다.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8회 2019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시종일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는 세리머니는 물론 팬들과 호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호평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장면은 사전행 사인 홈런레이스였다. 박진우(NC 다이노스)와 한선태(LG 트윈스) 2차 연장까지 결합한 끝에 승부가 갈렸다. 지명타자제도가 있는 KBO리그에선 투수가 타격하는 모습을 볼 일이 많지 않아 많은 이들은 둘의 공방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한선태는 2아웃 이후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대행 홈런을 폭발하며 기선을 제압했고, 박진우도 좌월 홈런으로 응수해 연장에서 승부를 가리게 됐다. 1차 연장에선 한선태가 먼저 우측 담장을 넘겼으나 박진우도 곧바로 받아쳤다. 승부가 갈린 2차 연장에선 한선태가 홈런 없이 아웃카운트 5개

를 소비했고, 박진우가 좌월 홈런을 터트리며 희비가 엇갈렸다.

비엘리트선수 출신으로 프로에 입성해 올해 1군 무대까지 밟으며 화제를 모았던 한선태는 “이렇게 큰 구장에서 처음 홈런을 쳤다. 사회인야구를 할 때는 평균보다 못 치는 타자였다. 홈런 하나만 치면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 뿌듯하다”고 활짝 웃었다.

본 경기에서도 다양한 세리머니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희관(두산 베어스)과 김민수(삼성)는 영화 ‘겨울왕국’ 캐릭터 올라프로 분장해 관중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양준혁 이사장은 “내가 각본을 짠 게 하나도 없다. 선수들이 잘 준비한 것”이라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고척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양준혁야구재단이 주최한 제8회 2019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가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야구만큼이나 볼거리가 풍성했던 하루였다. 1. 겨울왕국 ‘올라프’로 분장한 유희관(왼쪽)이 김하성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 타자로 출전한 정우영(왼쪽)이 ‘길리쉬트’를 착용한 채 실책을 범한 원태인을 위로하는 모습. 3. 김용의가 겨울왕국 ‘엘사’로 변신해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4.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축구 레전드’ 안정환이 시구자로 나서 또다른 볼거리도 선사했다. 고척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윤석민의 쓸쓸한 퇴장...레전드 명맥 희미해져가는 타이거즈



KIA 윤석민

‘레전드’ 명맥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 우완투수 윤석민(33)이 지난 13일 은퇴를 결정했다. 윤석민은 구단을 통해 “다시 마운드에 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상적인 투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활로 자리를 차지하기보다 후배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게 은퇴를 결심했다”며 의사를 밝혔다.

윤석민은 2005년 2차 1라운드 지명으로 호랑이 유니폼을 입었다. KBO 통산 12시즌 동안 398경기에 등판해 77승 75패 86세이브 18홀드 평균자책점 3.29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1시즌에는 17승(5패) 1세이브 178삼진, 평균자

책점 2.45, 승률 0.773를 마크해 투수 4관왕(다승·평균자책점·삼진·승률)에 오르는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다승, 평균자책점, 삼진, 승률 4개 부문 1위를 차지한 선수는 KBO 역사상 선동열 전 감독과 윤석민 뿐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금메달), 2009년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준우승) 등 국제대회에서도 맹활약을 펼쳐 타이거즈를 넘어 한국야구의 ‘에이스’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빅 리그 도전을 마친 뒤 2015년부터 KIA와 4년 90억 원에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었으나 어깨 부상으로 인해 최종 쓸쓸한 마무리를 짓게 됐다.

과거 ‘에이스’의 갑작스런 퇴장은 ‘레전드’라는 수식어의 실종을 뜻 한다. 윤

석민은 전성기의 기량을 꾸준히 유지했다면 선동열, 이종범 등 타이거즈 레전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배였다. 하지만 지금의 퇴장 모습은 레전드보다 ‘아픈 손가락’을 떠올리게 한다.

윤석민을 비롯해 많은 주목을 받았던 김진우, 한기주가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 결국 그라운드를 떠났다. KIA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이을 수 있는 ‘리빙 레전드’가 사실 상 양현종(31) 한명 밖에 남지 않았다.

해태 시절에 비해 희소성이 점점 더 커지는 타이거즈 레전드의 현실은 쓸쓸한 뒷맛만을 남기고 있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